

데스크 시각

녹두서점과 ‘소년의 서(書)’



김미은 문화1부장

“그날, 잠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모두가 영원히 사라져 버리는 게 아닌지, 우리가 꿈꿨던 거, 갈망했던 거 다 사라져 버리는 것은 아닌지, 우리들 목숨을 포함해서요.”

물기 어린 낮은 목소리로 그녀가 말했다. 인터뷰를 진행하다 보면 유난히 마음에 남는 대목이 있다. 대개는 어떤 의미 있는 단어나 특별한 에피소드일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데, 그녀와의 인터뷰에서는 이상하게 ‘잠시’라는 단어가 가슴에 깊이 남았다. 그녀가 말하는 ‘그날’은 전남도청이 진압된 1980년 5월 27일 새벽이다.

그녀, 정현애 전 광주시의회는 ‘녹두서점’ 주인이다. 남편 김상윤(운상원열사 기념사업회 이사장)과 계림동 헌책방 거리에 서점 문을 연 게 1977년. 녹두서점은 단순히 책을 파는 공간이 아니었다. 광주 사회운동의 거점이었다고, 사회 변혁을 꿈

꾸던 이들의 아지트였다. 1980년에는 오월 항쟁의 한복판으로 들어갔고, 1981년 문을 닫을 때까지 끊임없이 민주화를 부르짖었다.

비엔날레서 35년만의 부활

“2016 광주비엔날레”의 화제작 중 하나는 ‘녹두서점-산 자와 죽은 자, 우리 모두를 위한’이다. 스페인 작가 도라 가르시아는 부부에게 편지를 보내 협조를 구했고, 리처치 작업도 진행했다. 35년 만에 녹두서점은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서점의 트레이드마크였던 붉은 전봉준 액자, 함께 일하며 공부했던 책들이 꽂힌 책장, 꽃과 과일, 태극기로 덮인 관, 바닥에 관처럼 짜 넣은 책장 등이 인상적이다.

작품이 완성되기 전 ‘광주, 시간 속으로 시리즈’를 통해 두 차례 ‘녹두서점’을 다뤘다. 부부에게 긴 이야기를 듣고 50여 매 가까운 기사를 쓰며 의외의 사실에 놀랐다. 첫째는 서점을 운영했던 기간이 아주 짧았다는 점, 또 하나는 사진, 일기 등 기록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당시에는 누구도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던 시절이었다. 계엄군에게 남편이 끌려간 후 정 씨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서점을 찾은 이들의 이름이 담긴 외상 장부를 없애는 일이었다.

실제로 만난 작품은 솔직히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못 미친 듯해 아쉬웠다. 솔한 이야기와 의미를 품고 있는 녹두서점을 구현한 방식이 조금은 단선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작품의 모티브가 된 ‘녹두서점’에 대한 설명이 거의 없는 점이나, 도슨트 해설 때 관객들이 서점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겉모습만 훑어보고 가는 것도 아쉬웠다.

하지만 “오랜 세월이 지나 녹두서점을 다시 기억 속에서 불러내 준 게 경이롭고, 작가에게 감사하다”던 정 씨의 말처럼 누구도 기억하지 않았던 존재를 다시 소환해 준 것에 의미를 부여하며 작품을 감상하다 보면 많은 기억들이 떠오른다. 낱넛서림, 황지서점, 청년글방, 백민서점 등 시대와 호흡했던 사회과학 서점들과 함께.

금서·오월 서적을 만나

이번 작품이 광주와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이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던 차 새로운 서점이 문을 연다는 소식을 들었다. 연극 연출가이자 독립 문화기획자 임인자 씨가 광주극장 옆 골목에 오픈할 ‘소년의 책다’. ‘인문사회과학예술 서점’을 표방한 이곳에서는 지금은 절판이 된 오월 서적들과 연극 관련 서적, 다양한 인문사회과학 서적을 판매한다. 현재 80% 정도로 한때 금서였던

책들은 한곳에 모아 두었다. 책장에 꽂힌 1500여 권의 책을 살펴보니 ‘녹두서점’의 서가가 어른거린다.

몇 년 전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함께 ‘도시횡단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그녀는 당시 ‘오월 광주’를 다시 공부했다. 광주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녔기에 5·18에 대해 많이 안다 생각했지만 착각이었다. “다음 세대들이 오월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됐고 지금은 ‘오월길 해설사’로도 활동 중이다.

그녀는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있다. 며칠 전에는 서울 대학로에서 걸출 사태에 맞선 릴레이 연극 ‘권리장전 2016 걸출각하’에도 참여했다. 그녀는 ‘제도에서 밀려나고 배제된 사람들’에 대해 발언하고, 불합리한 사회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 왔다. 그제 바로 문화와 예술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서점을 오픈한 이유도 단순히 책을 사고파는 공간을 넘어 그런 논의들이 진행되는 공간을 꿈꾸어서다. 더 나은 사회를 꿈꾸며 한발 전진하는 것, 과거와 현재·미래를 잇는 연결 고리가 되는 것, 그제 ‘소년의 책’의 모토다.

녹두서점은 전시가 끝나고 나면 해체돼 사라져 버릴 터다. 어느 공간에서든 그 흔적들을 다시 만나 볼 수 있다면 좋겠다. 비엔날레는 오는 11월 6일까지 계속된다. /mekim@kwangju.co.kr

은펜클럽

간송 전형필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서미정 광주시의회 의원

TV영화제내에서 ‘암살’을 다시 볼 수 있었다. 전지현, 이정재, 이정우, 조진웅, 오달수 등 초조화 캐스팅으로 명연기를 볼 수 있었던 기쁨과 안옥윤, 염석진, 하와이캐틀, 신흥무관학교 출신 속사포 등 캐릭터들이 가진 매력, 그리고 김구, 김원봉, 안옥윤 등 실존 인물들에게서 나오는 역사적식과 존경심이 두 번을 봐도 사그라지지 않았다.

영화 암살에는 몇 분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에게는 수많은 존경할만한 애국지사 분이 계시고, 그 중에는 간송 전형필 선생님이 계신다. 간송선생은 6000억원이 넘는 재산으로 우리 문화재들을 사들이 보화자이라는 우리나라 최초로 사립박물관을 세운신 분이다.

1906년 서울 종로 부잣집의 늦둥이 막내아들로 태어난 간송은 25세에 십만 석 추수를 총괄하는 조선 최대 지주가 된다. 그리고 독립운동가 오세재 선생의 의견에 따라 한 해에 수만 점의 문화재가 도굴되어 일본으로 팔려나간던 상황 속에서 민족의 혼과 얼을 지켜내기 위해 문화재를 감시하는 눈을 기르고 문화유산을 수집하였다.

가와집 다섯 채 값으로 낡은 그림을 사고 다시 그보다 더 비싼 금액을 들여 수리하고 표구를 했던 간송 선생의 정성이 오늘날 우리에게 민족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의 높은 문화 수준을 세계에 자랑할 수 있게 만들었다.

간송미술관은 국보 제65호 청자기린유개항로, 제66호 청자삼강연지왕암문정병, 제68호 고려청자삼강운학문대병, 제70호 훈민정음 해례본, 제71호 동국정운, 제72호 계미명금동삼존불상, 제73호 금동삼존불상, 제74호 청자오리형연적, 제149호 동래선생교정복사상철, 제270호 청자모자원숭이형연적, 제294호 백화정화철채동채초충난국문병 등 11점의 국보를 비롯해 보물 10점, 국립중앙박물관보보다 많은 200여 점의 겹쳐 정선의 유물

을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 전시된 작품들로만 신윤복의 미인도를 비롯해 1000여 점이 넘는다고 하니 그 규모와 함께 간송 선생의 얼마나 많은 품을 팔았는지에 대해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최근들은 서울발 뉴스에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져 왔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전시되고 있는 간송미술전이 내년 2월을 마감으로 기약했는데 쉽게 들어갈 수 있다는 소식이다.

서울 성북동의 간송미술관은 공간이 협소하여 매년 봄, 가을 각 2주 동안만 전시해 왔었고, 2014년도부터 동대문디자인플라자로 장소를 옮겼다. 간송의 소장품이 외부로 나가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 각 신문마다 문화면에서는 비중 있게 다뤘었고, 2014년 3월부터 ‘문화로 나라를 지키다’라는 전시명으로 진행된 간송문화전 1부와 같은 해 7월 간송문화전 2부 ‘보화각’은 3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다녀갔다.

하지만 지금은 동대문디자인프라자는 디자인박물관으로 쓰려던 공간 성격에 맞지 않고 전시성과가 미흡하다는 의견을 냈었고, 간송미술관 측에서도 전시실

조명 문제와 전시 기획에 대한 간섭 등의 이유로 불편한 심정을 내비쳤다고 한다.

이런 사정을 듣고 보니 광주에 있는 아시아문화전당의 전시실이 생각이 났다. 만약 우리 시에서 간송미술전이 열린다면 어떻게 될까? 아시아문화전당과 광주 비엔날레와 간송미술전이 연계된다면 한국의 고근대 미술과 현대미술을 모두 아우르는 도시가 될 것이며, 전국에서 전시를 찾아 광주를 찾게 되어 문화관광의 측면에서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다. 예향의 도시에 이만큼 어울리는 기획도 드물다는 생각이 든다.

정신적인 측면에서도 개인주의, 배금주의가 만연한 오늘날 우리 사회를 걱정한다면, 간송 전형필 선생이 지켜낸 우리 민족의 자존감과 주체성을 기리고 이어가는 것은 우리 지역 청소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문화관광 콘텐츠를 걱정하는 광주 기획자와 우리시 문화정책 담당자가 이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주길 바란다.

.....

은펜클럽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싣는 코너입니다.

기 고

가정이라는 공간의 의미가 바뀌어야 한다



권성욱 송원대 사회복지학과·대학원 주임교수

최근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고, 자녀가 부모를 학대하는 내용의 기사가 심심찮게 보도될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다. 물론 과거에도 이같은 소식이 없지 않았다. 그럼에도 최근에 더 자주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가정에서 담당하던 여러 기능들 가운데 효와 인성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가정은 바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휴식처이고 안식처다. 가정에서 온 가족이 모여 하루일과에 대해 서로 대화를 나누고, 깔깔대며 웃기도 하고, 혹은 슬피

하기도 하면서 서로 가족임을 확인하는 공간이다. 직장·인간관계 스트레스와 상처를 서로 보듬고 치유하는 힐링의 보금자리이기도 하다.

가정은 과거에는 소위 ‘삼상머리 교육’을 통해 가족으로서 유대를 확인하고 교육이 이뤄지는 공간으로 역할을 했다.

하지만 핵가족화를 거쳐 ‘혼밥족’, ‘나홀로 가족’이 늘고 있는 세대에서 고유한 가정의 의미가 급격하게 희석되고 있다. 부모는 직장 일 때문에, 자녀들은 공부 때문에 언제부터인지 가정은 지친 일상에 빠진 식구들이 단순히 모여서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는 공간적인 의미만을 가진 곳으로 변질되어 버린 듯하다.

부모들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일하지만 정작 이를 위해 생활의 대부분을 보내는 직장생활은 오히려 자식을 위하지 않는 행동이 돼버린지 오래됐다. 많은 부모가 아이들을 위해 지극정성을 다해 바산 장난감과 옷을 사 주고 잘 먹여 주는 것만으로 부모의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하지만 되레 자녀와 부모의 사이는

멀어져 버렸다. 인정하고 싶지 않을지 모르지만 냉정한 현실이다.

드라마로 제작된 웹툰 ‘미생’에서 선 차장 “우리를 위해 열심히 사는데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네”라고 닳뜨리처럼 말하는 장면은 우리들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해 하루 48분만을 부모와 함께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개국의 평균(2시간 30분)에 비하면 턱없이 짧다. 이는 아동의 삶의 만족도가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한 것과 결코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문자마 범죄를 일으킨 이들의 성장과정을 보면 대다수가 부모와 같이 보내는 시간이 적거나 학대를 경험한 이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사례를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이는 가족간의 단절이 사회문제를 양산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보내는 시간들 속에서 추억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가정은 더 이상 가정의 의미를 갖기 힘들다. 여기에서 벗어나는 자녀와 부모의 간극을 회회복하는 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게 된다. 다시 가정을 꾸리는 것만큼 힘든 일이 될지도 모른다.

‘엄마가 뒤집레’라는 제목의 TV프로그램에서 한 엄마와 자녀들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은 함께 보내는 시간과 대화의 부재가 만들어 낸 우리들 삶의 단면일 것이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같이 웃어주고, 같은 곳을 보며, 같이 있 기반 해도 정이 쌓인다.

우리는 부모와 자녀간에 절대적인 만남의 시간을 확보해야 하며, 이런 시간 속에서 인격적인 대우를 받으며, 대화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면, 현재 나타나는 문자마 범죄나 왕따문제 등 수많은 사회문제를 줄일 수 있고, 더불어 조금은 더 살맛나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社 說

속 빈 강정으로 드러난 창조경제혁신센터

전국 각 지역의 특성을 살려 창조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취지의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곁돌고 있다. 특히 지역별 현황을 보면 대부분 성과가 미미하고 알맹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9월 ~ 2016년 8월까지 1607개 업체 중 266개 업체에 설립 목적과 취지와 맞지 않는 지원이 이뤄졌다고 한다. 현대차 그룹이 지원하는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도 목적 외 업종에 자금을 지원한 것 대해 발언하고, 불합리한 사회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 왔다. 그제 바로 문화와 예술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서점을 오픈한 이유도 단순히 책을 사고파는 공간을 넘어 그런 논의들이 진행되는 공간을 꿈꾸어서다. 더 나은 사회를 꿈꾸며 한발 전진하는 것, 과거와 현재·미래를 잇는 연결 고리가 되는 것, 그제 ‘소년의 책’의 모토다.

녹두서점은 전시가 끝나고 나면 해체돼 사라져 버릴 터다. 어느 공간에서든 그 흔적들을 다시 만나 볼 수 있다면 좋겠다. 비엔날레는 오는 11월 6일까지 계속된다. /mekim@kwangju.co.kr

위에 설립됐다.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도 지난해 자동차 분야 창업 생태계 조성, 수소 연료 전지차 연구 산업 육성, 서민주도형 창조경제 모델 제시 등의 사업 추진을 골자로 한차례 맞을 올렸다.

물론 광주혁신센터는 올해 초 전국산업단지내 국내 첫 수소융합스테이션을 완공하는 등 자동차 분야의 창업생태계·수소연료전지 기술 발전을 선도하고 있다. 또한 지역발전 동력 특하기술 나눔과 우수인력 채용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

하지만 미래 자동차 산업 기반조성과 이를 토대로 지역경제 고도화를 이루고 고용 증대와 파생 효과를 극대화 하는 패러다임을 만든다는 목표와 달리 전혀 관련 없는 분야에 자금이 흘러 들어간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정부와 광주시, 현대차 그룹은 창조경제혁신센터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 시스템을 점검해 제대로 된 자금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송민순 논란에 분명한 입장 밝혀야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이 정국을 뒤흔들고 있다. 쟁점은 노무현정부가 2007년 11월 유엔총회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에 기권할 당시 사전에 북한에 의견을 구했고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이를 주도했다는 것이다.

이는 비선 실제 최순실 씨와 핵심 실세 우병우 민정수석 문제로 수세에 빠졌던 새누리당에 최대 호재가 된 듯하다. 새누리당 지도부에서는 연일 ‘내통’ ‘반역’ ‘총박’ 등의 자극적 단어를 던지며 안보 이슈 확산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남북 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른 현실에서 접근 여당의 이 같은 태도는 ‘뭇문을 개가 뭇 문은 개’를 나무라는 격이지만 문재인 전 대표의 모호한 입장에 문제가 없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의 반복은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로서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 ‘기억 잘 하는 사람에게 물어보라’는 것도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당시 청와대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에 대해 기권을 결정할 때, 북한에 통보했는지, 의견을 조정한는지, 아예 통보하지도 않았는지 국민은 헛갈리고 진실을 알고 싶기 때문이다. 노무현·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 같은 상황에 처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아마 정면 돌파를 통해 지지층을 결집시키거나 당시 상황을 단순 명료하게 설명하며 국민을 납득시켰을 것이다.

문재인 전 대표는 그동안 솔한 정치적 담판에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오히려 그의 모호한 리더십이 문제를 꼬이게 만든 경우가 많다.

이번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 파문은 결국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의 리더십을 검증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차기 대통령은 경제, 민생, 북핵 문제 등 산적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탁월한 리더십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문 전 대표는 지금이라도 가타부타 명확히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신문사 수습기자 교육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사채 부검 참관이다. 사건기자를 하다 보면 의문사를 접할 기회가 있고 그럴 경우 부검이 사망 원인을 밝히는 마지막 절차인지만 전문성 제고 차원에서 수습교육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1992년 겨울, 전남대병원 영안실에서 목격할 첫 부검은 거북한 체험이었다. 시신의 두개골을 절단하고 개복하는 장면은 가능하면 하지 말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다. 부검 참관 후 선배들이 사 주는 돼지 갈비는 부검에 대한 거북함을 이겨 내야 진정한 사건기자가 된다는 가르침이었다.

80년대와 90년대는 민감한 죽음을 놓고 부검 논란이 자주 일어났다. 이른바 ‘부검정국’(剖檢政局)인데, 광주·전남 출신들이 유독 많았다. 1987년 6월 항쟁의 기록제가 된 연세대생 이현원 군이 대표적이다. 이 군은 경찰이 손 쇠투탄에 맞아 한 달 만에 숨졌는데 부검을 놓고 경찰과 유족이 갈등을 빚었다. 양측의 합의가 가족과 학생 대표 입회하에 부검이 실시됐고 최후탄 파편이 뇌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1991년 4월 전경 쇠파이프에 맞아 숨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2-0195)
정 지 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다 지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